



## 海外資源 調査 때 遭遇한 일들

大韓鑛業振興公社 海外資源部長  
金 性 洙※

### 1. 되살아난 苦難의 記憶

海外資源業務를 3年만에 다시 擔當하다 보니 우리나라 海外資源確保를 爲하여 처음으로 機構가 發足되고 最初로 海外資源調査의 任務를 떠고 떠나던 일, 其後에도 여러나라를 돌아다녀보면서 任務를 遂行하는 途中에 生覺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이런일, 저런일들이 머리에 되 살아나곤 한다.

數次に 걸친 原稿要請을 받아 왔으나 筆才가 없는 本人으로서는 몇번 거절하여 왔으나 더 이상 거절할 수도 없는 體面때문에 지금 이자리에 서 記憶이 되살아나는 것을 골라서 널리 알리는 것도 다른 同僚들로 하여금 無意味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參考가 될 것이라고 여겨져서 敢히 이편을 들었다.

### 2. 海外出張 許可받는데 氣盡

1975年 9月 中旬, 볼리비아를 向해 出發했다. 當公社에서 海外資源調査의 目的을 떠고 海外出張을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當時만 하더라도 요즘과는 달리 海外資源에 대한 認識이 거의 없는 탓인지 海外公務旅行 審査委員會에서 本人의 海外出張이 다섯번씩이나 保留가 되어 거의 포기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이었다.

그러나 失望하지 않고 마지막 非常手段으로

※ 産業應用技術士(應應用地質)

海外資源確保의 緊要성과 今般旅行 目的에 對하여 머리를 쥐여 짜서 밤새워 作成한 브리핑 차드를 둘러메고 審査委員會에 出頭하였다. 같이 가지고 간 鐵鑛, 銅鑛等 몇個의 멋진 鑛石標品을 보이면서 誠心誠意껏 委員들에게 說明한 것이 奏効하여 許可가 나왔고 이와같이 어렵게 마음을 조이면서 받아들인 海外出張인지라 막상 飛行機에 오르니 脈이 빠지고 몸이 축 늘어진다.

### 3. 라이타는 안켜지고

日本 羽田空港에 到着하자 마자 눈 딱감고 巨金 12弗짜리 高級 라이타를 하나 샀다. 물론 點火性能은 그만이다.

드디어 目的地인 볼리비아에 到着하였다. 無事到着한 홀가분한 氣分으로 첫 담배를 피울려고 라이타를 켜니 어쩔일인지 불이 켜지지 않는다. 호텔에 와서도 그 이튿날도 연달아 켜보았지만 불은 결코 붙지를 않는다. 할 수 없이 켜지지 않는 라이타를 원망하면서 그곳 성냥을 사서 쓸 수 밖에 없었다.

모든 業務를 計劃대로 끝마치고 돌아오는 途中 페루 리마에서 우연히 라이타를 켜보니 파란 불꽃을 뿜으며 켜지지 않는가! 그 순간 라이타에 對한 원망은 볼리비아로 돌아갔다.

### 4. 「三禁」의 守則

볼리비아는 俗稱 하늘아래 첫 洞里라고 하리만큼 아주 높은 高山地帶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酸素不足으로 因한 高山病을 앓게 마련이고 그

동안 이곳을 다녀간 韓國人중에는 이러한 高山病에 걸려 病院진세만지고 歸國했다는 말을 들었다.

空港의 位置 높이가 海拔 4,080m, 首都라파즈가 海拔 3,800m인 高山地帶에 位置하고 있으니만큼 커지지 않는 라이타는 勿論, 鑛山의 位置와 探查의 어려움을 可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때문에 이곳에 到着하면 當分間 〈三禁〉事項이 있다. 卽 〈禁走〉뛰지 말것, 〈禁酒〉술마시지 말것, 〈禁色〉女자를 가까이 말것 등이다.

## 5. 콜라로 닦은 이

물없이 사는 人間들이 存在한다면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볼리비아의 첫 調査地域인 海拔 3천 5백~4천m의 차칼리아地方에서의 일이다. 村落도 있고 마침 호텔도 있다는 住民들의 말을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곳에 到着하였다. 投宿할 호텔로 들어서니 平生 처음보는 호텔規模다. 約 20坪 남짓한 ㄱ字의 흙집 움막에 寢臺라는 것이 板子 5~6장을 깔아놓은 것이 호텔施設 全部이다. 化粧室은 호텔밖 빈터가 모두 利用되고 있다.

周圍를 휘 돌아보니 村落은 勿論, 警察官派出所마저 온통 흙으로 만든 움막집으로 되어 있으니 이 호텔 以上을 바라한다는 것은 어리석다. 더구나 이 地域은 新生代 第3紀地層에 幼年期的 丘陵性地形으로 構成되고 보니 물을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 없다.

住民들은 빗물을 貯藏하여 食水로 쓰고 있으니 우리 一行中 그 어느 누구도 그 물을보고 구역질을 안내는 사람이 없었다. 다시는 海外出張을 안오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도리가 없다. 할 수 없이 作業服차림에 作業靴까지 신고 새우잠을 자고나니 몸이 무겁기만 하다. 세수는 아예 拋棄하고 이만이라도 닦으려니 양추할 물이 있어야지... 에라 모르겠다, 몇 병 남지 않은 콜라를 아껴서 목을 추기고 한모금의 콜라로 이를 닦고나니 입안이 텅텅하기만 하다.

## 6. 韓國의 밤

볼리비아와 칠레 接境에 位置한 벨렐겔라地方에서의 일이다. 차칼리아에서 너무 혼이난 經驗 때문에 이번에는 먹을 것, 마실 것, 덮을 것, 닦을 것 그리고 그곳 國民學生用品(當時 韓國文化使節團長께서 喜捨)까지 2臺의 車에 잔뜩 싣고 떠났다.

首都 라파즈에서 非舗裝道路를 따라 무려 8時間을 달려 目的地에 到着하니 마치 흙먼지로 빛은 人形처럼 눈만 반짝반짝한다. 다시는 海外出張을 안오겠다고 또 마음 먹었다. 하루밤을 자고 이튿날 일찍 그곳 國民學校에 들러 校長以下 校職員들을 만나 韓國紹介 책자와 大韓鑛業振興公社 紹介책자를 보이고 韓國의 눈부신 發展相을 자세히 소개한 후 學用品을 傳達하고 일터로 떠났다.

밤 8時쯤 짙어오는 어둠속에 웅성웅성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 宿所로 校長以下 校職員들이 찾아와서 韓國의 밤을 열어 주겠다면서 노래를 부르며 키타를 쳐댄다. 우리 一行도 快히 應對를 하고 위스키를 실컷 待接하면서 아리랑, 도라지 등을 들려주면서 흥겨운 밤을 보냈다.

## 7. 堵列하면서 歡送

그곳에서 묵는 동안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學生들에게도 親切하게 손을 흔들어 人事하고 親熱해졌다.

모든 調査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아침 8時에 學校 校庭에서 全學生이 모인 가운데 「잘 가시오 韓國人, 다시 오시오 韓國人」의 歡送式이 배풀어지고 學生들이 路上에 堵列해서 손을 흔들어 주는 가운데 그곳을 떠났다.

그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곳 住民들은 親切하고, 부지런하고, 흥겹게 놀 줄도 아는 멋있는 韓國人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하며 특히 「벨렐겔라」國民學校 校長은 學校名을 「韓國國民學校」로 改名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韓國에 對한 印象이 좋았다는 말을 傳해 듣고 호뭇한 바음에서 모든 疲勞가 완전히 풀리는 기분이다.

## 8. 富強한 國力을 實感

1960年代 初에 英國, 프랑스, 스웨덴等 유럽을 旅行할 때 「나는 韓國人이오」라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을 程度로 우리의 國力은 보잘것이 없었지만 10餘年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韓國人임이 자랑스러울만치 우리의 國力은 全世界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어디서나 엿볼 수 있다.

1978年 4月 말레이지아 사바 州知事는 우리 一行과의 對談途中 웃음섞인 語調로 「美國會社의 計劃書에 8年이면 總投資額을 回收한다고 하였는데, 韓國人의 근면성과 經濟發展速度로 볼 때 韓國會社는 4年이면 可能하지 않겠느냐」고 反問하는 바람에 場內의 拍手를 받기도 하였다.

世界속의 韓國人, 全世界를 누비는 우리의 國力——쉬지 말고, 머뭇하지 말고, 繼續해서 넓고 깊게 뻗어나가라고 두손 모아 마음속 깊이 빌어 보았다.

1977年 10月 俗稱 食人種이 나온다는 赤道의 나라 파프아 뉴기니아에서의 일이다. 同行했던 一行은 떠났고, 本人 혼자만 남아서 맡은 任務를 遂行하게 되었다.

## 9. 처음보는 나에게 외상

하루는 그곳에서 本人의 業務遂行에 많은 도움을 준 몇 人士를 저녁 食事に 招待해 놓고서 急히 그 場所로 가느라고 돈지갑을 호텔에 두고 왔다는 事實을 뒤늦게 알고서 食事代 支拂할 때

카운터에 가서 事情이야기를 했더니, 그 主人은 나를 쳐다보며 「자넨 토요타?」라고 물기에 「노코리아 현대」라고 對答하니 오히려 반기는 눈치로 即席에서 나의 付託을 들어주었다. 外國에서 처음으로 터보는 외상이다. 생전 처음보는 外國人에게, 언제 떠날지 모르는 나에게 그와같이 아무 거리낌없이 외상을 줄 수가 있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그후 여러번 들은 이야기지만 이곳 住民들은 日本보다는 韓國에 對해서 好感을 더 갖고 있다 하며 韓國企業에 對한 좋은 認識과 信用度로서 어느 호텔이나, 어느 食堂이나, 어느 商店이나, 언제 어디서나 去來를 할 수 있을 程度라는 것을 그곳에 常駐하는 現代洋行 駐在員로부터 들은 바 있다.

## 10. 世界로 퍼져가는 鑛振

그래서 本人이 濠洲에 머무르는 동안 한번 試驗삼아 해본 結果 역시 이곳에서도 韓國에 對한 認識이 좋다는 것을 直接 經驗한 바 있다. 우리 韓國人, 우리의 國力은 이제 世界 어느 구석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實感하면서 어깨를 한번 짝 펴 보았다.

지금 이 시각에도 全世界로 퍼져가는 우리의 國力속에 當會社 海外資源探查員들은 「世界의 資源을 韓國으로」라는 民族中興의 大命題아래 海外各地를 누비면서 구슬땀과 함께 망치소리를 울리면서 이 산봉우리에서 저 산골짜기로 넘어 다닐 것이다.